



고객 가치를 우선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 회사

한국전력기술(주)

2009년은 한국전력기술(주)(이하 한기)가 21세기 초일류 기술 회사로 우뚝 발돋움하기 위한 도약의 해이며 우리 회사는 '고객 가치를 우선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회사'라는 장기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서의 대안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방향 설정을 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한기는 회사의 장기 비전 및 성장 모멘텀 추진을 위하여 크게 다음 세 가지 분야로 역량을 집결하고자 한다.

고객 감동 실현을 위한 원전설계 품질 제고

설계 결과물에 대한 설계 품질 확보는 사업주에 대한 계약적 책임 사항이며 회사의 대외 신뢰도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사안이다. 한

기가 세계적인 원전 설계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설계 품질 제고 노력으로 경제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수 불가결한 과제이다.

이를 위한 설계 인프라 강화의 일환으로 대내외 관련사와의 실시간 협업 시스템 구축, 3차원 직접 설계 방법과 전문 Checker 제도 도입과 선행 호기 경험의 전산을 활용한 체계적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3차원 직접 설계 방법은 한기 중심의 통합 정보화에서 고객의 Needs에 대응하는 고객 중심으로, 또한 기존 설계 업무 절차의 전면적 개선을 전제로 한 전산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신월성 1, 2호기 시공사의 실제 시공 데이터를 활용한 원전의 4D구현으로 획기적인 건설 공기 단축은 원전 설계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회사의 전략 사업으로 가동 원전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 역량 집중

한기는 설계 위주의 사업 영역을 탈피하고, 설계 기술과 경험을 발전소 유지와 보수에도 적용하여 보다 나은 발전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영역을 넓힐 계획이며, 발전소 설계 수행자로 어느 누구보다 많은 발전소 건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발전소 운전 및 성능상의 문제가 발생시 원인 규명에 의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이러한 강점을 십분 활용하여 가동 원전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추진 세부 내용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다.

먼저, 고객 밀착형 기술 지원 및 제안형 사업 개발 체제 강화로 각 현장별로 운영 책임자 및 상주 인력을 파견하여 현장의 기술적인 문제 해결 및 상호 관심사 협의를 위한

주기적인 현장 순회 서비스 및 정기적 기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고객의 Needs를 적기 파악 및 최적의 Solution 제공을 위한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가동 원전 기술력 제고로서 체계적인 O&M 사업을 수행키 위해 가동중인 발전소 건설, 운영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데이터 베이스화함과 더불어 핵심 기술의 도입 및 전문 기술자 훈련을 통하여 발전소 문제점 진단 및 처방 능력을 높여 발전소 수명 전주기를 관리하는 발전소 홈닥터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해외 사업 개발 적극 추진

무한 경쟁 시대에서 해외 시장은 더 이상 선택 시장이 아닌 국내 시장의 대체 시장이다.

따라서 해외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설계 사업, 가동 중 원전의 O&M 사업 및 해외 원전 기술 인력 지원 사업 등 비교 우위에 있는 한기 고유 상품을 개발중에 있다.

그리고, O&M 사업 업무 수행 영역 다변화와 연관 기술력 확보를 위해 취약 기술 위주의 국내의 교육 시행으로 사업 개발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미주, 유럽 및 동남아 지역 등에 해외 사업 전담 지원 조직

을 운영하여 회사의 해외 사업 개발 확대 체제를 구축하며 회사의 글로벌화 및 세계화로의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현재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벡텔 등에 20여 명의 인력을 파견한 상태이며 이에 추가하여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URS 등에 대해서도 기술 지원을 검토 중에 있다.

이들 추가 사업은 늦어도 올 상반기 중에는 계약할 예정이며 연말경에는 100명 이상이 해외 사업 업무에 종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지난 3월 말에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AP1000 종합 설계 용역 계약은 해외에 기술 인력을 파견해 지원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원전 주요 설계를 한기에서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패키지 방식이라는 점에서 진일보한 방식이며 2010년까지 매년 50여 명의 기술자가 AP1000 원전 건물과 부속 건물 설계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이번 용역을 통해 웨스팅하우스와 전략적 파트너로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 웨스팅하우스가 중국과 미국 내에서 시작하는 AP1000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계기를 마련하였다..

중국 시장의 경우 현재 CNPEC의 링야오 2단계 사업 등에 기술 인력 4명을 파견하여 한기의 기술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으며 기수

행 중에 있는 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중국 시장 참여폭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모로코, 터키, 캐나다, 루마니아, 이집트, 두바이 등지에도 한전 및 한수원 주도하에 노형 수출을 목표로 전력 그룹사 모두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진출을 추진중이며 한기도 원전 설계 회사로서의 역할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기는 회사 창립 이후 줄곧 해외의 다양한 원자로 공급국과의 공동 설계 경험을 통하여 미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여러 나라 기술의 장단점을 파악하였고 이 소중한 경험이 바탕이 되어 세계 어느 나라와도 협력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국내에서 이룩한 해외 의존형 기술 자립 및 제한된 원자로형에 대한 설계 기술의 자립에서 벗어나 독창적이며 최고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두루 갖춘 세계 최첨단 원전을 독자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회사의 목표이자 비전이다.

이를 위해, 설계, 기기 구매, 건설, 설치, 시험, 시운전, 및 전 수명 기간 동안 운전 등 발전소 건설 초기부터 수명 종료시까지의 설계 관련 전 부문에 걸쳐 발전소를 자문할 수 있는 전천후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코자 한다. 